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1. 진출현황 및 애로점

가. 우리의 진출현황

□ 최근 교역규모 급증세

- 1992년 한-베트남 수교 당시 약 5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2007년에는 7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1월~11월중에만 9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품목별 구조를 보면 우선 수출은 석유제품, 기계류, 전자제품 등이 주요 품목이고 수입은 수산물, 신발류, 전기기기 등임.
- 한편 한-베트남 교역 수지는 2007년 기준 한국이 44억 달러의 수출초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수출초과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향후 통상 마찰의 가능성이 있음.

<표 47>

한국 - 베트남간 교역 추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8
수 출	2,561	3,256	3,432	3,927	5,760	7,804	4,346
수 입	511	673	694	925	1,392	2,037	1,448
교역규모	3,072	3,929	4,126	4,852	7,152	9,841	5,794

자료 : www.kita.net

□ 개방정책 이후 진출 증가세

—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 실시 이후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진출도 증가하여 2009년 6월말 기준 4,155건에 50억 882만 달러의 투자잔액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5>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 동 투자금액은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인허가 기관인 기획투자부(MPI)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 8월 20일 기준 2,254건에 승인액 202억 달러, 유입액 68억 달러로 증가하는데, 이는 베트남내 통계에는 제3국 우회 진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로 투자 규모가 일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6년 중에는 대형 부동산 투자, 신도시 개발, 대형플랜트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자 금액이 급증하였음.

<표 48> 국가별 대베트남 투자 현황^{주)}

단위 : 백만 달러

국 가	건 수	승인액	유입액
대 만	3,016	21,287	8,591
한 국	2,254	20,192	6,809
말 레 이 시 아	330	18,056	3,868
일 본	1,139	17,659	5,126
싱 가 포 르	747	16,759	5,395
영국령버진군도	447	13,160	4,329
미 국	474	8,682	2,161
홍 콩	552	7,586	2,651
태 국	208	5,698	2,421
캐 나 다	88	4,791	1,008
기 타	1,415	32,161	13,467
합 계	10,670	166,031	55,826

주) 1988년~2009년 8월 20일까지의 투자 금액으로 MPI 기준임.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9. 9. 21-27

- 특히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가전부문에 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통신 부문도 우리기업의 제품들이 석권하고 있음.
- 투자 지역별로는 전력, 수도, 인력, 도로, 항만 등 투자 인프라가 베트남 내에서 월등히 우월한 호치민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수도 Hanoi, 공단이 많이 있는 Binh Duong, Dong Nai 지역, 유전이 물려있는 Ba Ria-Vung Tau 지역 등에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짐.

<표 49>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주)}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건 수	승인액	유입액
HCMC	3,037	27,105	9,697
Ba Ria-Vung Tau	207	23,376	6,389
Hanoi	1,558	19,089	7,357
Dong Nai	1,020	14,251	6,713
Binh Duong	1,923	11,638	4,566
Ninh Thuan	23	9,996	850
Ha Tinh	10	7,990	2,737
Thanh Hoa	33	6,996	465
Phu Yen	47	6,378	1,443
Hai Phong	301	4,228	1,530
기타	2,511	34,984	14,079
Total	10,670	166,031	55,826

주) 1988년~2009년 8월 20일까지의 투자 금액으로 MPI 기준임.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9. 9. 21-27

나. 2008년 베트남 현지법인 경영분석

(1) 경영성과

가) 업종별 경영성과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중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중 조사대상기업의 69%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8년 하반기중의 세계적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EU 등의 수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원유, 신발, 의류,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목의 성장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표 50> 업종별 경영성과

단위 : 천 달러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제 조 업	3,515,426	434,791	61,438	-14,798	-31,732
부 동 산 업 ^{주)}	34,085	15,252	2,555	-3,003	-4,816
건 설 업	11,202	2,271	-9,324	-9,855	-9,943
기 타	53,827	28,786	5,916	3,833	2,312
전 체	3,614,540	481,100	60,585	-23,823	-44,179

주 : 임대업 포함

— 기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의 97.2%를 차지하며 여전히 베트남 진출 현지기업의 주요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음. 건설업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하며 총매출액에서는 0.3%를 차지하였으나 총손실에서는 22.5%의 비중을 차지함.

나) 업종별 이익률

— 분석대상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12.4%로 전체평균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기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건설업이 -88.8%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표 51>

업종별 이익률

단위 : %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ROA	ROE
제 조 업	12.4	1.7	-0.9	-0.9	-2.1
부 동 산 업	44.7	7.5	-14.1	-1.1	-3.1
건 설 업	20.3	-83.2	-88.8	-4.4	-8.8
기 타	53.5	11.0	4.3	0.5	1.6
전 체	13.3	1.7	-1.2	-0.9	-2.3

다) 당기순이익 현황

— 흑자법인은 63개로 전체 법인 수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자법인은 179개로 68.8%를 차지하여 당기순이익보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현지법인이 더 많았음.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 흑자법인은 1억 4,642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적자법인은 1억 9,060만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4,418만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표 52>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단위: 개, 천 달러, %

	법인수	비 중	당기순이익
흑 자	63	24.2	146,419
적 자	179	68.8	-190,598
전 체	260	100.0	-44,179

- 제조업 중 선박건조, 수리/개조를 다루는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4,009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한 현지법인이 1,548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음

<표 53> 주요흑자법인

단위: 천 달러

	업 종	주요품목	당기순이익
1	제조업	선박건조, 수리/개조	40,085
2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15,481
3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써비스	10,411
4	기 타	호텔, 부동산임대(사무실,아파트)	9,810
5	제조업	컬러TV및 부품	9,707

- 제조업 중 브라운관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현지법인이 1,391만 달러로 가장 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타이어보강재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법인이 1,277만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음.

<표 54>

주요적자법인

단위 : 천 달러

	업 종	주요품목	당기순이익
1	제조업	브라운관	-13,911
2	제조업	타이어보강재	-12,772
3	제조업	HRSG, 담수설비, 운반설비	-9,635
4	부동산업	아파트, 주상복합	-8,674
5	제조업	면사, 면직물, 혼방사, 혼방직물	-8,353

(2) 영업현황

가) 매출현황

— 분석대상 베트남 현지법인의 매출구조는 현지판매가 53.7%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출이 23.1%, 제3국 수출이 23%로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함.

— 현지판매 중 기타가 40.4%로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법인은 주로 현지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음.

<표 55>

베트남 현지법인 매출현황

단위 : 천 달러, %

	현지판매		한국수출		제3국 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출액	482,318	1,460,999	800,104	37,222	59,023	774,866
비 중	13.3	40.4	22.1	1.0	1.6	21.4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 업종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현지판매가 52.5%, 한국 수출이 23.8%, 제3국 수출이 23.7%로 현지판매의 비중이 크며 특히 현지판매 중에서도 관계회사가 아닌 현지시장판매가 39.9%로 큰 비중을 차지함. 부동산업과 건설업은 현지판매가 100%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56> 업종별 매출현황

단위 : 천 달러

	현지판매		한국수출		제3국 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 조 업	440,214	1,406,143	797,958	37,222	59,023	774,866
부 동 산 업	148	33,929	-	-	-	-
건 설 업	1,691	9,511	-	-	-	-
기 타	40,265	11,416	2,146	-	-	-
전 체	482,318	1,460,999	800,104	37,222	59,023	774,866

-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현지판매 비중이 67.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기업은 한국수출비중이 45.4%로 가장 높았음.

<표 57>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현황

단위 : 천 달러

	현지판매		한국수출		제3국 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 기 업	355,704	1,246,684	257,085	17,453	45,548	446,785
중소기업	121,203	210,383	538,213	18,042	11,298	327,054
기 타	5,411	3,932	4,806	1,727	2,177	1,027
전 체	482,318	1,460,999	800,104	37,222	59,023	774,866

나) 매입현황

— 분석대상 베트남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는 현지매입이 44.7%, 한국 수입이 29.6%, 제3국 수입 25.7%로 현지매입비중이 가장 높음.

<표 58> 베트남 현지법인 매입현황

단위 : 천 달러,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 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입액	379,146	720,288	684,325	45,366	75,601	555,818
비 중	15.4	29.3	27.8	1.8	3.1	22.6

다) 상품수지 개선효과

— 분석대상 베트남 현지법인은 34.6%의 수출유발효과, 39.7%의 수입유발효과를 기록하였고 상품수지 개선효과는 -5.1%를 기록함.

<표 59> 베트남 현지법인 상품수지 개선효과

단위 : 천 달러, %

	투자잔액 (A)	수출 (한국→현지법인)		수입 (현지법인→한국)		상품수지
		금액 (B)	수출유발 효과	금액 (C)	수입유발 효과	개선효과 (D-E)
			(D=B/A)		(E=C/A)	
베트남	2,108,896	729,691	34.6	837,326	39.7	-5.1
전세계	56,183,712	122,243,640	217.6	57,212,952	101.8	115.7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 전체 평균치에 비해 베트남은 수출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모두 낮았으며 상품수지 개선효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상품수지가 오히려 악화됨.

- 업종별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만 상품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제조업과 기타부문에서는 상품수지가 악화되며 전체적으로 -5.1%의 상품수지 효과가 발생하였음.

<표 60>

업종별 상품수지 개선효과

단위 : 천 달러, %

	투자잔액 (A)	수출 (한국→현지법인)		수입 (현지법인→한국)		상품수지
		금액 (B)	수출유발 효과	금액 ^㉔	수입유발 효과	개선효과 (D-E)
			(D=B/A)		(E=C/A)	
제조업	1,559,083	726,831	46.6	835,180	53.6	-6.9
부동산업	196,417	-	-	-	-	-
건설업	107,504	2,479	2.3	-	-	2.3
기타	245,892	381	0.2	2,146	0.9	-0.7
전체	2,108,896	729,691	34.6	837,326	39.7	-5.1

- 투자자 기업규모별 상품수지 개선효과는 대기업이 16.1%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42.9%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부문도 -17.4%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수출액보다 수입액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남.

<표 61> 투자자 기업규모별 상품수지 개선효과

단위 : 천 달러, %

	투자잔액 (A)	수 출 (한국→현지법인)		수 입 (현지법인→한국)		상품수지
		금액(B)	수출유발 효과	금액◎	수입유발 효과	개선효과 (D-E)
			(D=B/A)		(E=C/A)	
대 기 업	1,338,942	490,312	36.6	274,538	20.5	16.1
중소기업	743,446	237,461	31.9	556,255	74.8	-42.9
기 타	26,508	1,918	7.2	6,533	24.6	-17.4
전 체	2,108,896	729,691	34.6	837,326	39.7	-5.1

다. 애로점

□ 투자 관련 행정 처리 소요시간 과다.

- 투자허가 기간이 규정보다 오래 소요되고 있으며 투자허가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예 현지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 공단 및 수출지역 등을 제외하고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사용,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공장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예상에 비해 인허가 관련비용이 크게 늘어남.
- 투자허가는 MPI(기획투자부)가 맡고 있고 토지사용 및 공장건축 허가 등은 市, 省 인민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데 투자허가보다 각 인민위원회의 토지사용 및 공장건축 허가절차가 더 까다롭고 처리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 투자기업 설립 시 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설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비용도 예상보다 비싼 편임.

□ 투자용 토지 취득 관련 문제가 많음.

-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공단 내 토지 임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농업용 토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수속절차가 복잡함.
- 국영기업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도시 내 공장의 시외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투자 진출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현지 거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함.
- 베트남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지만 개인이 그 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투자 관련 인프라가 열악함.

- 도로운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 컨테이너의 운송 및 통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도로여건은 호치민시 등 남부의 경우 비교적 좋은 편이나 하이퐁-하노이 구간 등 북부지역이 특히 열악한 실정임. 도로 및 교량이 너무 낡았거나 좁아 대형 구조물의 경우 도로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베트남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체제는 정비단계에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많으며 편법이 성행하고 있음. 또한 제도 및 시책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정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중요함.
-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호치민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토지, 건물 임차료 등이 급상승하고 있음. 한편 수출가공구 건설로 시작된 공단개발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장단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함.

□ 현지 인력 관리의 어려움.

- 대체로 베트남인은 아시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손재주가 좋고 근면하며 명석한데다 탐구력을 갖추고 있어 최상급 노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나라에 배타적이므로 현지 인력 활용시 관리 및 통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진출 확대방안

가. 진출 전략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진출 전략 필요

- 베트남에의 진출은 동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연자원에 기초를 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이익추구보다는 장기적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이익추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음.

-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아직 섬유, 봉제, 가방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의 진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업체간 현지거래선 확보 및 인력확보경쟁 등 불합리한 과다경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경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품목(업종)의 다양화와 함께 진출지역의 다변화 역시 요망된다고 하겠음.

□ 투자검토단계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과 시장 조사가 필수적임.

- 투자를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임. 베트남은 각종 법제도와 규정이 복잡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추진하면 업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기 쉬움.
- 현지 투자여건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현지에 기 진출한 동종의 한국계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임.

나. 진출 유망분야

□ 노동집약적 제조업

-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여 특히 봉제, 피혁, 제화, 완구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유리한 편임.

□ 건설용 자재

-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라 건설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자재 분야에서 합작 투자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멘트 제조(내수용), 화강암 및 대리석 가공(수출용), 전기 및 전자조립 생산, 농업기계류, 자동차, 소형 모터 등 기계공업, 비료 생산(인회석 이용), 합성수지 생산, 조미료, 약품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함.

□ 수산업 관련분야

- 새우, 가재, 게 및 어류의 양식·가공 산업이 유망함. 특히 새우 양식은 베트남에서 국제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있을 정도로 품질이 양호하여 베트남의 주 수출품의 하나를 이루고 있음.

□ 농수산물 재배, 가공분야

- 차, 타피오카, 골품 및 등나무, 후추, 참깨, 사탕수수, 면화, 황마, 담배, 커피, 야채, 양잠 등의 농산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음.
- 삼림개발에 관해서는 현재 1,000ha까지 30~50년 동안 삼림지를 대여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주선한 기간의 종료 시까지 투자할 경우 생산물의 30%~70%를 처분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코코넛, 야자나무, 고무나무, 대나무, 계피나무의 생산 등에 유망한 것으로 보임.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분야

-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관계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수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가 높음.
- 그러나 이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합작자체가 국제기관 또는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내지 차관의 도입에 의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건설 장비를 리스하거나 기술을 제공한다는 형태로 합작을 하거나 혹은 서방제국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송 분야

- 해상수송의 경우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송 물량은 급증할 것인 반면 베트남 자체의 수송능력은 단기간에 확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합작 사업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 자원부문 진출방안

-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의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첫째, 우리기업들은 자본과 기술력을 동원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석유산업의 경우 외국의 원유개발 메이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집적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정보공유와 과당경쟁의 방지가 요구됨.

- 둘째, 자원개발분야의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등 단계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 셋째, 원유 및 가스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결 및 수송 등을 위한 인프라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ADB 나 세계은행 등의 지원과 연계해 진출하거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춘 광구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넷째, 중동국가에의 석유수입의존도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선 개발수입의 측면에서 유전개발참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현재 베트남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전력개발 사업의 경우 BOT방식을 통한 민자 유치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방식의 사업참여에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 부담, 투자회수의 장기화, 경험과 기술 부족,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미비로 인한 난관이 따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 정보통신분야

- 베트남의 통신 산업은 2000년 이후 평균 7.5%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5% 증가, 200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5% 증가하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데스크탑이 가정에 95%정도 보급되며 이동통신, 인터넷 등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시장 개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방 정책과 통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인터넷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결제하는 등의 전자상거래와 같은 관련 산업도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분야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베트남의 IT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이 열악하고 단일화된 통신 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통신 산업 시장개방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도 자주 변경되며 통신 관련 법률 체제가 완비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많기 때문에 진출 시 최신 시장정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임.

3.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현황

가. 수은 자금

-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출입은행의 대베트남 금융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2009년 9월말 기준 6억 달러의 여신 잔액을 기록하고 있음.
- 자금 유형별로 보면 장단기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은 2008년 11월 대비 약 두 배정도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경제가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어 해외투자자금도 그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62>

대베트남 수은자금 금융지원 현황

(2009. 9. 30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집 행		여신잔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자 금	1,651	1,893	235	141
수 입 자 금	7	2	0	0
해 투 자 금	137	1,070	44	371
이 행 성 보 증	83	214	15	89
기 타 보 증	19	4	0	0
합 계	1,897	3,183	294	60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나. EDCF 지원

-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¹⁾에 의한 대베트남 유상원조 제공은 2009년 8월 말 기준 총 27건, 9,664억원(승인기준)으로 제1위의 지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 기획재정부는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큰 베트남을 EDCF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고 베트남에 대한 국별원조전략 (Country Strategy Program: CSP)을 수립하여 대베트남 EDCF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1) EDCF의 운영주체는 정부(기획재정부)로서 지원사업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계약의 체결, 사후관리 등 EDCF 운영 실무를 대행하고 있음.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표 63> 대베트남 경제협력기금지원(EDCF) 현황
(2009. 8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승인일	승인액	집행액
1	Thien-Tan 상수도 사업	1995-05-26	19,885	19,885
2	18번 국도 개량사업	1995-05-26	18,355	18,336
3	Ba Ria 복합화력 발전설비 구매사업	1996-12-31	41,516	41,516
4	백신생산공장 건설사업	1999-09-22	34,728	34,727
5	Ba Ria 복합화력 발전설비 구매사업(보충)	2000-01-24	8,470	8,462
6	Thien-Tan 상수도 사업(보충)	2000-07-04	8,009	7,190
7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2001-08-21	23,400	18,759
8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2004-08-31	26,386	692
9	빈푹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2005-10-12	24,541	376
10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	2006-12-29	32,715	199
11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2007-03-02	62,512	1,667
12	투아티엔hue 종합병원 건립사업	2007-04-02	38,832	1,015
13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2007-11-16	5,918	5,322
14	락지아 우회도로 건설사업	2007-11-16	104,162	2,372
15	호아빈 상수도 건설사업	2007-12-04	18,055	-
16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2007-12-04	44,039	-
17	디지털 방송 인프라 확충사업	2007-12-04	31,456	152
18	비엣찌 하수도 건설사업	2008-07-22	41,404	-
19	라이짜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2008-07-22	12,583	-
20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	2008-09-19	16,332	-
21	호아깐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2008-10-07	136,394	34,753
22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08-10-07	37,745	-
23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2008-11-14	3,775	-
24	탕화성 하쯔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2008-11-14	3,775	-
25	탕화성 탕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2008-11-14	3,775	-
26	탕화시 사회경제개발사업	2008-12-24	41,183	-
27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제10구간)	2009-04-22	126,489	19,663
소계	소 계		966,434	215,08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